제 1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-010222 **한글 성명:** 김은진

새로운 시나리오

'가장 큰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데 있다.' — 공자

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히 다녔던 상영관에서 영화에 몰두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침해로 시스템이 붕괴하여 영화가 멈춰버렸다. 시스템이 먼제까지 고쳐질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?

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멈추게 되었다. 우리는 영화가 멈춰버린 상영관에서 어둠 끝의 희망을 기약하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. 하지만 좀만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던 지독한 바이러스는 좋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소풍한 것들을 무정하게 빼앗아 가고 있다. 그러자 사람들

성균관대학교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010222 **한글 성명:** 김은진

온 겁에 절려 영화가 멈춰버린 스크린
만 묵묵히 쳐다보게 되었다. 시스템을
다시 복원할 소수 사람들만 제외하고,
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
하는 이 어두운 상영관에 스스로를 가
둔다고 뭐가 달라질까? 어둠의 끝이 보
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암
흑한 어둠 속에서 겁에 절려 모든 것
을 멈추고 포기할 것인가? 누군가가 겁
에 절려 자신의 삶을 멈추고 포기했을
때 다른 누군가는 분명 그곳에서 뛰쳐
나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
적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을
것이다. 보고 있던 영화가 멈춰버린 것
은 그 영화의 런닝타임이 멈춘 것이지,
결코 우리의 시간마저도 멈춰버린 것은
아니다. 멈춰버린 영화를 어찌 할 방법
이 없다면, 과감하게 그 어두운 상영관
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
려 가는 것이 어떨까?

성균관대학교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-010222 **한글 성명:** 김은진

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
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다. 그 과정에서
많은 이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더라면
우리 인류는 한곳에 멈춘 채 발전을
하지 못했을 것이다. 바이러스 때문에 온
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삶에 많은 제약이
생긴 것은 사실이다. 하지만 이를 핑계
로 삼아 겁에 떨려 모든 것을 포기하
게 되다면 이는 아주 안타까운 일일
것이다. 보고 있던 영화가 멈춰버려 많이
당황스럽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
해,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, 이 세상에서
다시 적응하기 위해 먼저를 털고 일어
나 자신만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
가기를 바란다.

앞서 인용한 공자의 말처럼 살면서
한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
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
위대한 영광이다. 우리가 쓰는 시나리오
마다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겠지만

성균관대학교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010222 **한글 성명:** 김은진

실패한 시나리오에만 멈추지 않고 새로운 노하우와 자신만의 개성을 더 득하면서 부단히 도전한다면, 언젠가는 성공한 영화로 상영관에서 백나게 상영될 것이라 믿는다.

성균관대학교